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2024년 첫째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의탁하는 송구영신예배가 오늘 밤 11시 30분에 모입니다. 허리띠를 준비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송구영신예배 후에 연령별사랑방 진급을 축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 공동체 직원 시무식은 3일(수) 정오기도회 시간에 겸하여 모입니다.
- 제23회 2024 기독교대안학교 컨퍼런스가 3일(수)-5일(금) 2박3일간 YBM연수원(화성시)에서 모입니다. 공동체학교 교사들이 참석합니다.
- 새해부터는 성서일기 범위가 잠언으로 바뀝니다.

제 40 - 53 호

2023년 12월 3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예지 · 김이레 청년 (생일 감사)

강단을 꽃으로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송년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이번 해를 정리하고(送舊), 새해를 맞이하기(迎新)

2023년의 끝자락이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나이만 먹어가는 스스로의 모습에 여러 상념이 들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머릿속은 저절로 내년에 대한 모습을 그려가며, 이런저런 계획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반복되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 2023년을 지나며 새롭게 필요나 흥미를 느끼는 부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돌아보니 문득 특별했던 송구영신예배가 떠오릅니다.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 (마야 달력에 의하면)세상이 멸망한다고 시끄럽던 2012년도의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GOP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마주보는 양구는 10월부터 5월까지 눈이 오는 동네였고, 그것은 성탄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성탄 이브 이후에는 2-3일 간격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보일러도 터져서 얼어버린 건물과 마당을 3일 내내 깨먹고 있었지요. 거기에 앞이 막막해 보이는 하루살이에 심신이 고된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서고 돌아와서 늦은 점심을 먹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날이 2012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때도 눈이 왔기에, 점심을 먹자마자 다시 제설로 잡혀가면서 새벽 컴퓨터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으로 GOP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타 부대라면 불가능한 밤 컴퓨터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조용한 새벽에 작게 소리 내어 찬양을 드렸던 송구영신예배는 참 좋았습니다. 교회도 없던 부대와 멀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과 목소리... 그 한때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었는지요.

선교와 섬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했다는 사실이, 새벽 2시에 다시 근무를 나가야 해도, 그 뒤에 다시 눈 쓸기가 기다리고 있어도, 군대에서 의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해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먹고, 이제까지의 나에게서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자는 다짐을 했더랬죠. 그렇게 맞이한 새해 첫 날에 저는 상병이 되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형제들과 종교개혁지 유럽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람에 따라 달라도, 아쉬움이나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쉽게 가지는 것이겠지요. 인생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해본다면 회한은 더 깊어집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한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후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서 다시금 자신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방공동체의 송구영신예배는 먼저 손을 씻고, 그 다음 띠를 묶습니다. 주님 앞에서 지난날을 회개하며 씻어버리고, 새로 주어진 삶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몸과 마음에 묶는 셈이지요.

부디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은 사랑방공동체의 모두 다함께, 잘 정리된 2023년 위에서 강하게 묶인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
< 누가복음 1장 76~7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288 335 488 / 219

기도 :

성경 :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제목 :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립니다

1. 내용: (What)

1~1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13~18 이미 죽은 성도에 대한 위로를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록

2. 의미: (Why)

1)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

2) 주님께서 오시니 서로 위로하자

3. 적용: (How)

1)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자.

2)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운 사랑방 식구분들

사랑방교회 식구분들, 안녕하세요. 임채정, 손희정 선교사님 아들 요섭입니다. 다들 추운 겨울 몸 조심히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겨울이 올 때면 항상 사랑방교회에 있을 때 모닥불 근처에 모여 따뜻한 불과 달달한 고구마와 함께 재밌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빠른 시일 내에 그 추억을 다시 반복하고 싶은 소망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처음에 정흠이에게 주보 글을 써 달라고 이야기를 들은 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내가 마지막으로 한글로 장문을 쓴 게 언제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해외 생활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정작 저의 모국어인 한글로 글을 쓸 기회가 많지 않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정흠이에게 감사의 말 전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캘빈 대학교에서 경제 전공과 경영 & 국제발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최대한 대학생활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막상 세상으로 나와 많은 걸 경험하며 꾸러기, 어린이, 멋쟁이에서 배웠던 가르침이 참 시대를 앞섰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우선순위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고 도전하며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이 가르침이 저의 삶을 사는 데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식구, 제 친구, 제 이웃,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사랑방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고 제에겐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모든 식구분들 다 너무 보고 싶고 빠른 시일 내에 뵙길 기대하며 여기서 마무리 인사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에베소서 4 : 22-24 인도자
21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이사야서 25 : 8b 인도자
106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누가복음 1 : 67-80 설교자
490 그루터기사랑방
“ 기다리던 이가 전한 복음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105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윤호중 하경임 / 봉헌위원 : 장미숙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박민정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이에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믿음으로 정리하여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다리던 이가 전한 복음

사가랴의 예언. 엘리사벳이 해산하고 8일째 되는 날, 친척들이 출산을 기뻐하며 할례를 행하려고 모였습니다. 사가랴가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쓰니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아기는 더없이 높은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사가랴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일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다리던 이가 전한 복음. 사가랴가 전한 소식은 듣는 많은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해 주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노인 시므온의 찬양과 안나 할머니가 전한 소식은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참된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세상에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내며 구주를 기다린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박태규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학교는 눈이 펄펄 내려와 영화 '겨울왕국'처럼 하얀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눈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신나게 뛰어 노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방학이라 학교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꾸러기학교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소방체험을 하러 간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들도 같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두가 즐거운 방학을 잘 보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꾸러기들은 방학이지만 선생님들은 24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피드백을 나누며 아이들과 1년을 잘 보내게 해주신 것에 감사와 함께 부족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더 나은 24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24년 2월에 있을 졸업식에 줄 졸업앨범을 작업 중입니다. 작고 귀여운 모습에서 멋지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때에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거의 천장에 가까운 사진을 추리면서 힘들지만 참 행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꾸러기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복잡하고 어려웠던 지난 3년간의 시간들은 대부분 정리되었고, 올 해는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하나 다시 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움과 가르침

어린이들은 각자의 일정과 과제에 따라 가정에서 방학을 잘 보내고 있고 선생님들은 방학 중에도 모여서 다음 학기, 다음 년도의 큰 그림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1월에 있을 졸업여행을 위해 6학년들과 담당선생님들이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추억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추억을 기억하며 힘을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졸업여행은 어린이들이 평생 행복한 추억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졸업여행은 6학년들이 의논하여 여행지와 일정을 결정합니다. 이번 졸업생들도 내년 1월, 10일의 일정으로 다녀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2023년이 곧 마무리되고 새해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멋쟁이들은 한창 방학을 즐겁게 보내는 중입니다. 간접적으로 듣기만 해도 여기저기 만나서 가본다던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다음 학기 준비를 하고 있다던가- 라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한 살씩 더 먹으면 그만큼 더 성장하고 변화할 멋쟁이들의 모습이 참 기대가 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가족과 친척끼리의 시간들도 소중하니 꼭 잊지 말고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멋쟁이학교 선생님들은 새해 연초에 다른 기독교대안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선생님들도 멋쟁이들도 각각 보람찬 방학 생활들을 보내면서, 새해도 즐겁게 맞이하길 바랍니다. 다들 해피 뉴 이어~

< 교사 : 이어진 >

언젠가 여름공동체 때, 주방에 들어가 보았다

아마 그때가 홍정길 장로님이 처음 주방을 하셨을 때라고 생각된다. 그때, 모처럼 주방에 가보니-모처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난 일을 못하니까 감히 가볼만한 곳이 아니었다-, 천국이 따로 없었다. 식구들이 힘들까봐 혼자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차도 준비해 놓고. 누구나 와서 수다 떨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나라였다. 나도 욕심이 생겼다. 그해 12월쯤, 신년 계획에 들어가기에 앞서 난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말씀드렸다. 나도 주방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셨다. “그냥, 집사님 맡은 일 하세요.” 그래, 하긴. 다시 한 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야 말았다.

코로나 때, 봉사부를 맡았다. 둔한 나는 그게 주방 봉사인 줄도 몰랐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하셨을 때, “아, 이게 그거?”라고 뒤늦게 감탄했다.

1년이 참 빠르게 지났다. 식사 계획표가 붙으면 언제 다 채워질까 싶기도 하지만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이 누군가가 항상 주일 식사 준비를 한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참 맛있다. 전교인이 이렇게 밥을 잘하는 교회도 없으리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른다. 내가 일을 못하니까 알아서들 잘 하신다. 정말 난 부엌에서 어정어정할 뿐이다. 어찌다가 내가 적극 도와준 날은 꼭 사고가 난다. 밥이 안되기도 하고, 쌀알 그대로 설은 밥이 되기도 하고, 국이 짤 때도 있고. 그래도 ‘맛있다’, ‘수고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처음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아, 이 감사의 말씀은 그분들의 신앙 표현이구나.’라는 생각에 요즘은 그저 마주 웃으며 인사를 한다. 일 못하는 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꼭 필요로 하실 거다.

세척기를 켜거나 밥솥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은 꼭 있어야 하니까.

식구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어요.

그루터기사랑방 전경희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이어진 전도사

찬송 : 365, 550

성경 :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 사울의 극적 변화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 <전쟁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성탄절에까지 전쟁이 확대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후 복구 과정 또한 수십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있는 곳에 자비와 평화가 도래하기를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새해를 맞이하는 신앙공동체들을 위해>

1) 신앙공체들이 연말 정리를 은혜 안에서 잘 이루도록.

2)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널리 전해지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송구영신예배 및 새해 맞이 준비를 위해

2) 변화하는 날씨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공동체는 새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양의 눈사람을 만들고 눈썰매를 타면서 즐겁게 주초를 보냈습니다.

수요일에는 공동체 직원들이 모여 종무를 했습니다. 푸짐한 식사도 함께하고 멋진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한 해를 잘 정리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공식적인 모임과 식사 없이 쉬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에 다시 눈이 내린다는 소식에 아이들은 신나고, 어른들은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 어떻게 눈을 치워야 하나 고민입니다. 많은 눈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지만 황량한 대지를 덮는 하얀 눈이 꼭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아 감격해봅니다. 흰 눈 가득한 사랑방, 땅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